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Children's Abilities of Self-control and Empathy*

강민주(Min-Ju Kang)¹⁾

심미경(Mikyung Shim)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children's abilities of self-control and empathy. 180 children aged 5 were selected from 4 kindergartens in G city. The gender breakdown for the sample group was as follows : boys comprised 60.0% (108) and girls comprised 40.0% (72) of the total sample. The Parental Intelligence Scales (PIS) was used to rate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Children's self-control and empathy were also measured. The SPSS 12.0 program was used for the purposes of analyzing the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was related in a general sense with children's self-control. However, such a relationship did not appear between rejection in the area of parental intelligence and self appraisal in self-control, nor did it appear between acceptance in intelligence and emotion in self-control. Secondly, the variable of encouragement was the only one in evidence in terms of mothers' parental intelligence and how it was related with children's empathy.

Key Words : 부모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 자기조절(self-control), 공감(empathy).

* 본 논문은 2010년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문의 전문임.

¹⁾ 무지개 유치원교사,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원

²⁾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연구센터 전문위원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Sh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je Univ., Kimhae 607, Korea
E-mail : chisshim@inje.ac.kr

I. 서 론

유아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진희, 2007; 이병래, 1997). 유아기는 충동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고 정서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사회화됨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자기조절이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여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Derryberry & Rothbart, 1988).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성숙과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발달되며, 유아기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주는 인간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임이 밝혀지고 있다(양옥승, 1993; Perry, 2001). Kopp(1982)는 자기조절이 유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 함께 유아가 사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공격적이며, 좌절에 대해 과잉으로 반응하고, 협동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대인간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타인의 느낌을 공감하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Gottman과 Kantz(1989)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줄 아는 아동은 인기가 있고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성 같은 문제 행동표출이 드물었다고 한다. Goodman, Brogan, Lynch 그리고 Fielding(1993)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려성이 결여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조절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하나인 맥락적 관점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사회화방법, 가족의 정서적 표현성 등 가족환경요인들을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자기를 조절하도록 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을 사회상황과 연관시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혜경, 2005).

자기조절 뿐 아니라 타인의 느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 역시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타인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Piaget의 조망수용이론을 중심으로 주로 인지발달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70년대 이후 공감이라는 용어의 도입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근래 들어 공감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봄으로써 좀 더 나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위한 주요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감이 유아가 타인과 접촉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어머

니의 역할에 따라 유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는 능력이 달라질 것이라 본다(최수량, 2002).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유아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아의 조절력과 공감능력은 부모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Belsky & Rovine, 1990). 즉,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부모역할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즉 지능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부모 사회인지(parental social cognition) 연구자들은 ‘부모 역할지능모델(model of parental intelligence)’을 제시하였다(Holden & Ritchie, 1988).

지능을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실제 환경에서 목적적으로 적응하고 형성하며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부모가 지능적으로 된다는 것은 특정한 환경 하에서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 또는 정(正)과 반(反)에서 적절한 합(合)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Sternberg, 1984). 지능을 ‘지적 행동’으로 본 Kail와 Pellegrino(1985)는 부모 역할지능(parental intelligence)을 ‘적절한 부모의 행동’ 혹은 ‘지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기초적인 인지능력을 포함한 정신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모양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부모역할지능 척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따른 부모의 태도나 성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한 현미숙(2004)은 부모역할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첫째, 일반적인 부모역할 상황에서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을 선택할 능력. 둘째, 부모역할을 해

야 할 갈등 상황에서 정(正)과 반(反)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적능력. 현미숙(2004)은 또한 이러한 지능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첫째, ‘아동에 대한 지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 및 부모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합(合)을 이끌어내는 적응적인 대처능력’으로서, 일반적인 부모역할 상황이나 개인 내 혹은 개인 간의 갈등상황에 접했을 때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부모역할의 지속적인 성장 인식’으로서, 자녀가 성장·발달함에 따라 부모 자신의 역할도 계속 성장해야함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능적 관점은 부모역할에 관한 지식을 부모는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그 신념에 따라 부모역할을 도출하여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대부분 그동안 익숙한 패턴으로 행동하지만, 갈등상황에 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상황에 따른 맥락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맥락에 따라 적절한 역할들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능이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유아에게 발생하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부모역할지능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

난 것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모역할 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지능’을 ‘일반적인 부모역할(양육, 관리, 발달자극 등) 상황에서 맥락에 맞는 합리적인 역할을 선택하는 능력과 부모역할이 필요한 갈등상황에서 정(正)과 반(反)으로부터 적절한 합(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적능력’으로 정의한 현미숙(2004)의 정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 능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유치원 4곳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대상 유아들의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에게 부모역할지능 설문지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는데, 총 191명에게 배부된 설문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82부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0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유아 및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은 남아가 108명(60.0%), 여아가 72명(40.0%)이었고, 형제 순위는 첫째가 104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80)

구 분	항 목	빈 도	비율(%)
유아의 성별	남아	108	60.0
	여아	72	40.0
유아의 형제순위	첫째	104	57.8
	둘째	66	36.7
	셋째	10	5.6
어머니 연령	34세 이하	32	17.8
	35세-39세	114	63.3
	40세 이상	34	18.9
어머니 학력	고졸	48	26.7
	대졸	127	70.6
	대학원졸 이상	5	2.8
어머니 직업	유 무	70	39
		110	61

둘째가 66명(36.7%), 셋째가 10명(5.6%)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114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이 34명(18.9%), 34세 이하가 32명(17.8%)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127명(70.6%)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48명(26.7%), 대학원졸 이상이 5명(2.8%)순이었다.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70명(39%)이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110명(61%)이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현미숙(2004)이 제작한 ‘부모역할지능척도(Parental Intelligence Scales : PI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IS는 부모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크게 발달자극, 양육, 관리 등 3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자극의 하위 영역은 공감, 격려, 증진, 합리적 권위이며, 양육의 하위 영역은 융통성, 거부, 수용이고, 관

<표 2> 발달자극역할의 하위영역별 구성요인 및 내용

하위영역	요인	내 용
공감	민감성	· 상황을 보고 자녀의 행동과 감정 예측하기 · 자녀가 보내는 신호 알기 · 표정을 보고 자녀의 행동과 감정 알아차리기
	감정이입적 의사소통	· 자기 지시적 열심에 대한 공감 · 또래 관계에서의 공감 · 의존적이지 않게 하기
격려	발달 진보 축하	· 사회· 정서적 진보 축하하기 · 끈기와 노력지속 축하하기 · 신체적 진보 축하하기
	탐색격려	· 편견이나 선입견 갖지 않도록 돕기 · 해결방법 미리 알려주지 않기 · 자유로운 공간탐색, 사물과 사람 탐색 지지
증진	기본 기술에서 멘토 되기	· 모델링을 통한 기본 기술 간접 교수하기
	언어 촉진 의사소통	· 자녀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 확장하기 · 개방적 의사소통하기
	터득한 기술 확장	· 인지적 능력과 다양성 연습 · 한 가지 기술 확장을 위한 지원
합리적 권위	독립성 인정	· 도움을 청할 때 까지 인내하기
	정서표현	· 부모의 좋은 정서· 감정 표현하기 · 부모의 미안한 정서· 감정 표현하기
	합리적 안내	·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전후 사정 설명하기 · 다양한 상황에서의 귀납법적 설명하기

리의 하위영역은 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구성 요인 및 내용은 다음의 표 2, 표 3, 표 4와 같다.

PIS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된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발달자극이 24~120점, 양육이 12~60점, 관리가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역할지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 영역 중 거부 역할 영역의 문항들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들로 구성

되어 있지만 모두 역점수로 처리되므로 거부 역할의 점수도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50 ~ .81 이었다.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이정란(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점검과 자기통제 영역으로 구분되며 자기점검의 하위영역은 자기평가, 자기결정으로, 자기통제의 하위영역

〈표 3〉 양육역할의 하위영역별 구성요인 및 내용

하위영역	요인	내 용
융통성	변화능력	· 위기에 당황하지 않기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	· 가족규칙 바꿀 때 개방적 협상하기 · 자녀육구와 가족육구 유지하기
거부	적대감 및 공격	· 거부 : 바쁘다고 말하기, 상대하지 않기 · 부정적 평가와 징계하기(체벌) · 악의적 감정 : 단점 강조하며 비난하기
	스트레스	· 배우자 관련 스트레스 · 부모자신 관련 스트레스 · 자녀 관련 스트레스
수용	지지 및 승인	· 자녀가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 갖기 · 장점 찾아 강화해주기 · 자녀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표 4〉 관리역할의 하위영역별 구성요인 및 내용

하위영역	요인	내 용
통제	명료함 적절성 일관성	· 공중도덕에 대한 통제 · 부모의 상황에 상관없는 통제의 일관성 · 자녀발달을 고려한 통제 · 약속과 규칙에 대한 일관성

역은 행동억제, 정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되는 어머니용 평가도구이다. 역 채점 문항은 25, 26, 27, 28, 29, 30, 31이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66~.80이었다.

3) 유아의 공감능력

Bryant(1982)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하도록 개발한 ‘공감능력 측정도구’를 연진영(1987)이 번안, 수정한 것을 최수량(2002)

〈표 5〉 부모역할지능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영역	하위 영역	문항구성	역채점 문항	Cronbach α
발달 자극	공감	1, 2, 3, 4, 5, 6		.74
	격려	7, 8, 9, 10, 11, 12		.72
	증진	13, 14, 15, 16, 17, 18		.81
	합리적 권위	22, 23, 24, 25		.71
양육	융통성	19, 20, 21		.50
	거부		26, 27, 28, 29, 30, 31	.75
	수용	32, 33, 34		.72
관리	통제	35, 36, 37, 38, 39, 40, 41, 42		.79

〈표 6〉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요인	문항구성	역채점 문항	Cronbach α
자기 점검	자기평가	1, 2, 3, 4, 5		.78
	자기결정	6, 7, 8, 9, 10, 11, 12, 13, 14		.80
자기 통제	행동억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8
	정서성		25, 26, 27, 28, 29, 30, 31	.66

이 만 5세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슬픔요인, 심적 부담 요인, 기쁨 요인, 불안 요인 등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에 1점을, ‘그저 그렇다’에 2점을, ‘매우 그렇다’에 3점을 부여하는 Likert식 3점 척도로, 각 문항을 교사가 질문하고 유아가 답하게 되어 있으며, 역 채점 문항은 4, 8, 12, 14, 15, 17, 18번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 문항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각 문항의 질문 내용에 해당되는 별도의 그림카드를 제작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질문하는 형식으로 실시된 공감능력 측정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실시되었다.

유아에게 그림카드 보여주며 질문한다.

(예시1)

교사 : 너는 텔레비전의 슬픈 장면을 보면서 운적 있니?

유아 : 네. 슬픈 장면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네. 운적이 있어요.
아니오. 운적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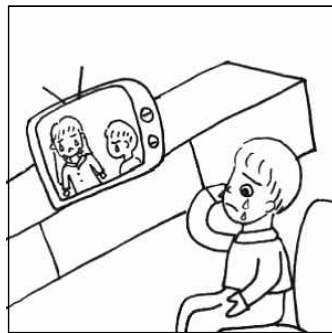
(예시2)

교사 : 친구가 우는 것을 보면 너도 울고 싶니?

유아 : 네. 항상 울고 싶어져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오. 울고 싶지 않아요.

그림카드와 함께 사용된 공감능력 측정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180명의 대상 유아 중 18명을 무선으로 표집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41~.75 였다.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예시1)



예시2)



〈표 7〉 유아의 공감능력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 구성	역채점 문항	Cronbach α
슬픔	2, 6, 10		.41
심적부담		4, 8, 12, 15, 18	.55
기쁨	1, 5, 9, 13, 16		.75
불안	3, 7, 11	14, 17	.52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집되었다. 먼저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만 5세 담임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 등을 설명하였다. 부모역할지능 검사지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검사지는 협조문과 함께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검사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교사에게 ‘공감능력 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아침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일대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평균은 3.92($SD = .42$)이었으며, 요인별로는 관리요인 4.33($SD = .51$), 발달자극 3.91($SD = .48$), 양육요인 3.67($SD = .47$)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평균은 3.54($SD = .40$)이었으며, 요인별로는 자기점검요인

〈표 8〉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80$)

	영역	M (SD)	하위 영역	M (SD)
부모역할지능	전체	3.92(.42)		
	발달자극	3.91(.48)	공감	4.06(.50)
			격려	3.86(.52)
			증진	3.55(.67)
			합리적 권위	4.30(.55)
			융통성	3.45(.65)
양육	3.67(.47)	거부	3.44(.66)	
		수용	4.36(.59)	
		통제	4.33(.51)	
관리	4.33(.51)			
전체	3.54(.40)			
자기조절능력	자기점검	3.54(.50)	자기평가	4.03(.56)
			자기결정	3.27(.58)
	자기통제	3.54(.43)	행동억제	3.51(.51)
			정서성	3.59(.49)
전체	2.26(.30)			
공감능력			슬픔	1.30(.47)
			심적 부담	2.70(.36)
			기쁨	2.25(.62)
			불안	2.42(.42)

3.54($SD = .50$), 자기통제요인 3.54($SD = .43$)이었다. 유아의 공감능력 평균은 1.74($SD = .26$)이었고, 요인별로는 심적부담요인 2.70($SD = .36$), 불안요인 2.42($SD = .42$), 기쁨요인 2.25($SD = .62$), 슬픔요인 1.30($SD = .4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표 9〉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180)

부모역할지능	유아 자기조절능력						
	자기 평가	자기 결정	행동 억제	정서성	자기 ^d 점검	자기 ^e 통제	자기조절 능력 총점
공감	.35**	.38f**	.47**	.16*	.42**	.40**	.48**
격려	.39**	.52**	.46**	.21**	.54**	.42**	.56**
증진	.40**	.51**	.42**	.15*	.54**	.36**	.52**
합리적 권위	.43**	.44**	.53**	.17**	.50**	.50**	.55**
융통성	.18*	.35**	.42**	.17**	.33**	.37**	.41**
거부	.13	.23**	.21**	.36**	.22**	.33**	.32**
수용	.44**	.26**	.28**	.07	.37**	.23**	.35**
통제	.46**	.48**	.44**	.21**	.54**	.41**	.55**
발달자극요인 ^a	.45**	.55**	.54**	.20**	.58**	.47**	.62**
양육요인 ^b	.29**	.36**	.37**	.35**	.38**	.42**	.47**
관리요인 ^c	.46**	.48**	.44**	.21**	.54**	.41**	.55**
부모역할지능 총점	.47**	.55**	.54**	.28**	.60**	.51**	.65**

* $p < .05$. ** $p < .01$.

^a공감+격려+증진+합리적 권위, ^b융통성+거부+수용, ^c통제, ^d자기평가+자기결정, ^e행동억제+정서성

로 나타났다($r = .65, p < .01$). 즉,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조절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대부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점검 능력은 어머니의 발달자극($r = .58, p < .01$), 양육역할($r = .38, p < .01$) 및 관리능력($r = .54,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능력 역시 각각 $r = .47(p < .01)$, $r = .42(p < .01)$, $r = .41(p < .01)$ 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기대되는 잠재적 발달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안내, 보고, 돌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자극의 역할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욕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양육역할을 많이 할수록, 세상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에게 일관성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제공하는 등의 관리역할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점검능력과 자기통제능

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정도와 유아의 자기평가 간, 수용정도와 정서성 요인 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에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유아의 공감능력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중 격려요인($r = .16, p < .05$) 및 증진 요인($r = .22, p < .01$)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거부요인과는 부적인 상관($r = -.24, p < .01$)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격려와 증진을 많이 하는 경우, 유아의 공감능력도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인 태도가 높을수록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 대한 유아의

〈표 10〉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N = 180)

부모역할지능	유아 공감 능력				
	슬픔	심적 부담	기쁨	불안	공감능력총점
공감	.02	-.02	.03	.09	.05
격려	.12	.12	.14	.03	.16*
증진	.12	.12	.19**	.10	.22**
합리적권위	.12	-.09	-.02	-.40	-.03
융통성	.12	.00	-.05	.18	.01
거부	.00	-.24**	-.02	.11	-.05
수용	.06	-.01	.02	.03	.04
통제	.06	.00	-.04	.11	.04
발달자극요인 ^a	.11	.06	.12	.07	.14
양육요인 ^b	.06	-.17*	-.02	.09	-.02
관리요인 ^c	.06	.00	-.04	.11	.04
부모역할지능 총점	.10	-.02	.05	.09	.09

* $p < .05$. ** $p < .01$.

^a공감+격려+증진+합리적권위 ^b융통성+거부+수용 ^c통제

공감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 18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공감능력 및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은 전체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계가 있었다. 영역별로 구분하여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도 대부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기대되는 잠재적 발달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안내, 보고, 돌봄 등 발달자극을 많이 제공할수록 유아의 자기점검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김혜경(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발달자극 역할이 유아의 자기결정능력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아를 대하는 것과 유아의 기능적인 정서조절이 서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서지영, 2003). 한편, 김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합리적 권위역할을 덜 할수록 유아의 자기결정능력과 행동 억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어머니의 양육역할 역시 유아의 조절능력과의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양육역할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점검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선희(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김혜경(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거부역할을 많이 할수록 화를 내는 정도, 불편을 느끼는 정도와 관련된 유아의 부정적

인 정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역할이 유아의 조절력과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어머니의 관리역할 역시 유아의 조절능력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세상에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아에게 일관성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제공하는 등의 관리역할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자기점검능력과 자기통제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일관적인 통제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자기 통제능력, 행동억제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이미라, 1999; Goleman, 1995)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역할은 유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델이 되어 유아의 자기결정능력을 높여 준다는 김혜경(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정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언어통제유형 중 인성적 통제가 높을 때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남이 보고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이후의 학업성취와 사회·정서적 발달 및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유아 교육기관 등에서 부모 교육과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부모역할지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은 전체적으로는 자녀의 공감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격려와 증진 정도에 따라서는 유아의 공감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녀가 보이는 끈기나 노력을 칭찬하며 격려할수록 유

아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모범적인 모델링이 되어주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자녀가 가진 기술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증진역할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 역시 유아의 공감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거부적일수록 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유아의 공감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양육역할을 많이 할수록 유아는 타인의 심적 부담에 대해 보다 공감을 잘하는 반면 어머니가 거부를 많이 할 경우 타인의 심적 부담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모역할지능, 즉 공감, 합리적 권위, 융통성, 수용, 통제 요인은 유아의 공감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적절한 통제 역할을 할 때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며,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지각하여 공감해 줄 때 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할 줄 알고, 부모가 융통성 있게 대해주었을 때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할 수 있다는 안은영(2006)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역할 가운데 통제, 수용은 유아의 감성지능 중 타인정서인식과 매우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타인정서인식이 낮아진다고 한 김옥희(2008)의 연구와 어머니가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한다고 한 이현민(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어통제 유형에 있어 인간지향적일수록 그 자녀의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지위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을 사

용 할수록 공감능력이 낮아진다고 한 최수량(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이 대부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공감능력은 탈 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 이후에 발달한다고 한 Piaget의 이론을 기초로 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유아는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를 보이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유아기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시기이고,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능력이 차츰 발달되는 시기이며 공감능력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및 사회화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아기부터 공감능력 발달을 돕는 부모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능력 측정도구의 적합도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능력 측정 도구는 원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본 연구에서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질문형식을 수정하고 질문내용에 해당되는 그림카드를 제작하여 함께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에 타당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은 내면의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적 차원에서 공감능력을 평가한 본 연구의 도구를 통해 그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보다 적절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이 유아의 자기조절능

력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공감능력과는 대부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변인을 누가 평가했느냐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모두 어머니가 평정을 한 반면, 유아의 공감능력은 교사가 평정함에 따라 반응의 편중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나 교사 등 어머니 이외의 다른 평가자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평가한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은 전체적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별로 부모역할지능 중 거부와 자기조절능력 중 자기평가 간, 부모역할지능 중 수용과 자기조절능력 중 정서성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은 유아의 공감능력과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 중 격려와 증진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감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G시의 유아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을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아의 공감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배문주, 2005)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부모역할지능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 결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에 포함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실제 행동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역할들을 평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적인 부모역할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관찰,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 등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관한 탐색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외국의 척도들의 수정·번안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학령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유아기의 연령에 적합한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옥희(2008).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2007). 부모역할지능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개념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경(2005). 어머니의 부모 역할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지영(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은영(2006). 어머니의 부모역할 지능과 유아의 정서

지능과의 관계.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옥승(1993). 유아 교육과정 연구의 재개념화 II : Vygotsky의 발생학적 인식론 활용. **유아교육연구**, 13, 93-113.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병래(1997). 父母의 心理的 姿勢와 幼兒의 情緒知能과의 關係.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선희(2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지영(2005).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수량(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공감수준과의 관계.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미숙(2004). 아동 부모교육·상담을 위한 부모역할지능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9.
 Bryant, B.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2), 413-425.
 Derryberry & Rothbart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2), 516-531.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
- Gottman, J. M., & Kan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 Psychology, 25*(3), 373-381.
- Holden, G., & Ritchie, K. L. (1988).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siner(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p. 30-59). New Jersey : Ablex.
- Kail, R., & Pellegrino, J. W. (1985). *Human intelligence : Perspectives and prospects*. New York : freeman.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 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Perry, N. E. (2001).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Sternberg, R. J. (1984). Towards a 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 *Brain and Behavioral Science, 7*, 269-287.
- Vygotsky, L. (1978).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년 5월 6일 투고, 2011년 7월 26일 수정
2011년 8월 1일 채택